

IoT에 빅데이터·AI 기술 합쳐... 씽큐가 제품 관리



박일평 사장 프레스 컨퍼런스

엘레멘트AI와 '인공지능 발전단계' 美 겨냥 '프로액티브 서비스' 소개 DD모터 탑재 트윈워시 신제품 공개

LG전자가 현지시간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1000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했다.

LG전자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캐나다 인공지능 솔루션업체인 엘레멘트 AI와 함께 개발한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발표했다.

LG전자가 소개한 인공지능 발전 단계는 ▲1단계 효율화(Efficiency) ▲2단계 개인화(Personalization) ▲3단계 추론(Reasoning) ▲4단계 탐구(Exploration) 등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LG전자는 특히 각 단계별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기준을 정의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1단계의 인공지능은 지정된 명령이나 조건에 따라 제품을 동작시킨다. 2단계부터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패턴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LG전자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박일평 사장이 '인공지능 발전 단계(Levels of AI Experience)'를 발표하고 있다.

을 찾고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다. 3단계는 여러 점점의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4단계는 인공지능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한다.

엘레멘트 AI 장 프랑스와 가네 CEO는 "오늘 발표는 인공지능이 향후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평 사장은 "LG 씽큐와 같은 인공지능의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해 산업 전반에 명확하고 체계화된 로드맵이 필

요하다"며 "올바른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딥러닝 분야 세계적인 석학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몬트리올 대학교 교수 겸 밀라연구소 창업자는 "우리는 개인과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며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제시한 LG전자를 지지했다.

◆AI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가전과 서비스 소개

LG전자는 인공지능 LG 씽큐로 편리하고 스마트해진 가전 및 서비스, 올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LG전자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레드 TV를 포함한 8K TV 신제품 등도 소개했다. 특히 LG전자는 올 3월부터 북미시장에서 본격 시작할 '프로액티브 서비스'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제품의 상태나 관리방법을 LG 씽큐 앱,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알려준다.

LG전자는 인공지능 DD 모터를 탑재한 트윈워시 신제품도 공개했다. 이 제품은 의류 무게를 감지한 후 인공지능이 약 2만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류 재질을 판단한다. 이어 드럼세탁기

는 LG전자만의 세탁방법인 6도션 가운데 최적의 모션을 선택한다.

LG전자는 프리미엄 TV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라인업의 8K TV 신제품을 선보였다. 8K 올레드 TV인 88·77형 LG 시그니처 올레드 8K 뿐만 아니라 8K LCD TV인 75형 LG 나노셀 8K도 전시했다.

이들 제품은 국제 표준 기준과 미국 CTA(소비자기술회)의 '8K UHD' 기준을 모두 충족해 선명한 8K 해상도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형올레드 #P올레드 #LCD 구조혁신... 1등 디스플레이 회사로

(플라스틱)



정호영 사장 기자간담회

올레드 TV용 패널, 차별적 가치 제공 미래 성장동력 대형 올레드에 '온힘' 특별 전시관 마련... 신시장 창출 적극 "LCD, 경쟁력 있는 제품만 집중할 것"

"과거에 누렸던 1등 디스플레이 회사의 모습을 명실공히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LG디스플레이 CEO 정호영 사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과 믿음을 갖는 이유는 우리회사의 기술과 인재가 단연코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전략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면 과거 세계 1등 위상을 누렸던 시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사장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 ▲대형 올레드(OLED) 대체화에 주력 ▲플라스틱 올레드(P-OLED) 사업 경쟁력 제고 ▲LCD 구조혁신 가속화를 전략으로 내걸었다.

그는 "올레드 TV용 패널은 풍부하고 정확한 색 표현뿐 아니라 슬림한 디자인과 구부리고 돌돌 마는 등 다양한 폼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G 디스플레이 기자간담회에서 정호영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팩터 등 차별적 가치를 제공한다"며 "현재 대다수 주요 TV 브랜드에서 하이엔드 제품으로 올레드 TV를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20만대에 불과했던 판매량은 2019년 300만대 중반까지 성장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올레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찍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올레드의 물량 확대뿐 아니라 올레드만이 갖는 장점을 바탕으로 제품 가치를 극대화하고 신규 시장과 고객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화이트 올레드와, 대형 올레드, P-올레드를 합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LG전자 글로벌 프레스 컨퍼런스가 열렸다. 각국 취재진이 '롤러블 TV'를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쳐서 40%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CES 2020' 기간 중 고객사 전용 특별 전시관을 마련해 항공 등 새로운 산업군의 OLED 제품들을 선보인다. 올레드의 유연성을 활용해 항공기 벽면을 화면으로 채우기도 했으며, 평평한 TV 화면에서 인쪽으로 굽는 화면으로 전환되는 기술도 선보였다.

P-올레드 사업은 향후 성장 기회가 가장 큰 분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한다. 정 사장은 "모바일쪽 상황을 보면 상위 30개 회사가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등 향후 P-올레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가장 먼저 사업 기반을 안정화하고 차별화된 가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발전하며 자동차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화질과 응답속도, 무게 등 장점을 가진 P-올레드는 자동차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2017년 LED 판매 1조원을 돌파했고 내년에는 2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성장장이 이어오고 있다. 정 사장은 "운송산업 전반에서 자동차, 항공에서 디스플레이 전체 매출의 30%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동차 P-올레드는 올해 2분기 말이면 출시되는데 자동차 수주 이후 매출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0% 매출이 나오는 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CD사업은 경쟁력 있는 부분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구조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조정해나간다고 밝혔다. 그는 "IT, 커머셜, 자동차 등 LG 디스플레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게임에 특화된 고속구동 고화질 모니터, 터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 방향에 맞춰 LCD에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에만 집중해 수익창출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실적은 하반기 이후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여러 문제들에서 P-올레드 물량 확보 이슈가 가장 큰데, P-올레드 물량을 확보한 캐파(사업역력)를 가동하는 여주와 광주 공장의 대형 올레드 양산과 판매시점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하반기 이후 좋아질 것이며, 상반기까지는 작년 하반기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광주 공장은 1분기 중으로 양산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 노트북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시장에서 소개 중인 폴더블 노트북은 평평한 화면을 접으면 노트북 형태로, 퍼면 태블릿으로 사용 가능하다. 폴더블 폰에 출시 여부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던 노트북, 태블릿이던 우리 폴더블 구현할 준비는 다 됐다"며 "우리 고객의 고객들의 제품 전개 일정과 상품기획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양성운·구서윤 기자